

# 건축문화 사랑방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1.4.137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발행인 : 강현규,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 02 취임사

제17대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취임사  
제30대 전라남도건축사회 한형민 회장 취임사  
제28대 전라북도건축사회 박진만 회장 취임사

## 03 종합

사랑에서 \_ 리더십, 조선 제22대 정조(1752~1800)  
건축사 Q&A  
건축사 만평

## 04-05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제17대 정인채 신임회장((주)건축사사무소 정호) 취임  
광주건축사회 신임회장단, 5개 구청 건축과장들과 간담회 가져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신임회장에 신정철 건축사 선출

## 06-07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제55회 정기총회 열고 신임회장에 한형민 건축사 선출  
전라남도, 전국 유일 '행복등지사업' 추진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본격적 추진

## 08-09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제55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전주지역건축사회, 제33회 정기총회 개최 및 신임회장 선출  
전라북도, 시군 '도시재생사업' 방향 공유·가속화

## 10 설계경기

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

## 11 시론

쇠뿔

## 12 독자광장

책 소개 \_ 아몬드  
한 편의 시 \_ 안개와 같은 인생  
한 장의 사진 \_ 미안마 평화를 위한 소녀의 기도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창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개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취임사**



제17대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인채**  
(주)건축사사무소 정호

존경하는 광주건축사회 회원 여러분!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정인채 건축사입니다.

먼저 제가 회장으로 당선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회원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그분들과 함께 새로운 광주건축사회를 고민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 가는 데 동참하고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가 광주건축사회 부회장과 이사, 광주건축사실험 부이사장,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 대의원 및 법제위원직을 역임하면서 고민했던 우리

광주건축사회 발전정책을 이제 회장으로 그 책무를 수행하며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건축계는 장기적인 침체와 대전환의 시기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작점에 서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중요한 시작점에서 제시되어 왔던 공약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회장 후보로 출마할 때부터 실현 가능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공약! 우리 건축사 회원님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그 공약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드리며 광주건축사회 제17대 회장으로 다음과 같이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약속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둘째!** 신뢰와 소통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는 화합의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직언을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회원 여러분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광주 건축문화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들 모두의 생존권 보장과 권익 신장 및 우리나라 건축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인채! 이제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 모두 이제 광주건축사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약속과 원칙을 지키고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어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광주건축사회를 비롯한 우리 광주광역시를 발전시켜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취임사**



제30대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한형민**  
예향 건축사사무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 건축사 회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세 4월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고통 당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접종으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 이제 속히 일상으로 복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축사 회원 간의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통해 더욱 협회를 내실 있게 다져가며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되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와 연대하여 법을 만드는 의회 행정부 학회 정책위 등등과 소통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어 불합리하고 모순된 다운 방식의 법과 제도를 논의하고 개선하여 우리의 업역을 지키는 일을 함께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료 기획 계획 근절!' 또한 '설계 감리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관용과 협력 없이는 이 생존의 권리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위기를 넘어서는 최고의 방법은 '함께'입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 권리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비를 오지 못하게는 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는 우산을 함께 쓸 수 있는 지혜와 의지가 있습니다.

건축사 회원 여러분! '상생! 화합! 존중! 도전!'으로 꼭! 함께 합시다. 복되고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취임사**



제28대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박진만**  
(유)장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존경하는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 여러분!

전라북도 건축사회 제28대 회장 박진만입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전라북도건축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임하시는 27대 이길환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전라북도건축사회 28대 회장으로 3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신임회장으로서의 목표는 「자랑스러운 건축사 시대」입니다.

우리 협회는 역대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우리 회원들의 업역 보호와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스물여덟 번째 주자로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회장으로서 저의 모든 역량은 회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정진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의 입법화에 발맞춰 하나 되는 협회, 일하는 협회, 봉사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재개편하고 이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건축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선제적인 법제도 개선 및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각 시군별 조례 제·개정제 앞서 지역건축사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도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법 해석에 따른 민원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건축사회는 건축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건축사의 대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들이 직접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하도록 격려함은 물론 우리 전라북도

건축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 건축사회의 위상 강화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건축사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단 하나! 「건축사」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건축사회는 특권도, 소외도 없으며 좌절도, 절망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더욱이 회원 간의 뒷다리 잡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건축사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러운 건축사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보호, 우리의 업역 확장, 우리의 미래 개척,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들의 참여와 단결과 노력만이 이를 지켜줄 것이며 보장해 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회원 여러분 건축문화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의 건축전문가 단체의 회장으로 국민들의 건축 행복과 회원의 권익 향상과 건축사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에서 \_ 일흔일곱 번째

리더십, 조선 제22대 정조(1752~1800)

1762년(영조 38년) 영조와 사도세자 간의 이간질을 하던 세력에 의해 판단이 흐려진 영조는 대리청정 중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후 1776년 3월 정조는 조선 22대 왕으로 즉위한다. 그러나 이듬해 1777년 8월 정유역변(정조 시해 기도사건) 등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리에서도 정조는 차츰 문무를 장악하며 안정화에 들어가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간다.

‘완벽’

조선시대는 무관을 무시하고 문관을 높이 여겨왔다. 정조는 스스로 “군사君師(임금이자 스승)라 자칭하고 “홍재전서弘齋全書(정조의 글을 60권 60책으로 정리한 문집)를 발간할 정도로 문인과 토론하기를 즐기고 조정의 정책을 이끌었으며 뛰어난 활쓰기 실력으로 무관을 견줄만한 위치에 있었다. 이렇듯 문무를 겸하여 문무겸전의 왕이 되고자 노력했다.

‘겸손, 검소’

정조는 신하들에게 본보기가 되고자 노력하며 항상 검소한 태도를 가졌다. 정조가 즉위했을 때 조정 재정은 절반 이상이 군비로 지출될 만큼 백성의 세금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정조는 결단을 통해 조정에서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하루 두 끼의 식사를 하고 찬은 다섯 가지로 제한하며 검소한 삶을 통해 남은 돈은 조정에 이관하여 백성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궁부일체宮府一體(왕실 재산은 조정의 재산으로 왕의 사유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실천했다. ‘군주의 위엄은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교만이 가득 차면 오만해지고 오만해진 왕은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혜안’

정조는 미래 인재 육성이 조선을 살릴 길이라 판단하고 1778년 6월 ‘경장대고更張大誥’를 발표한다. ‘경장’은 개혁을 의미하는 말로 첫째, 민부-백성을 부유하게 한다. 둘째, 인재-인재를 육성한다. 셋째, 융정-국방개혁을 추진한다. 넷째, 재용-국가재정을 안정시킨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문치규장文治奎章(학문을 육성하는 규장각 설치), ‘무설장용武設壯勇(백성과 나라를 위한 군대 장용영 신설)’을 내세워 백성을 보호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개혁하려는 혜안을 가졌다.

‘포용’

정조는 고려말 불교의 폐단에서 시작된 ‘송유억불崇儒抑佛’정책에서 배척되어온 불교와 승려, 허황된 사상이라 여겨진 ‘노자사상’, 왕을 인정하지 않는 ‘무군지교無君之教’의 ‘서학西學(천주교)’ 등 배척되고 멸시되었던 사상과 백성도 포용함으로 다양한 인재가 등용되고 육성되는 정치를 펼쳤다.

‘존중’

정조는 백성들이 억울함에서 벗어나려면 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을 적극 백성에게 가르치고 국가정책 및 국사를 훈민정음으로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보다 많은 백성들이 국가가 하는 일을 알게 하고자 했다. 또한 여자는 태어나서 아버지, 결혼하여 남편, 늙어 아들을 따른다는 ‘삼종지도三從之道’의 사상 속에서 ‘봉수당진찬도’(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서 보듯이 조선시대 최초 궁내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잔치를 함으로 여성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

‘평등’

‘서얼허통’(첩의 자식인 서자는 과거를 못 보던 것을 허락하는 제도), ‘자율전칙’(열 살 이하 버려진 고아를 고을 수령이 열 살이 될 때까지 길러 어린 나이에 배고파 노비가 되는 것을 막는 제도), 1800년 5월 승하하기까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찌 귀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노비보다 슬픈 존재는 없다. 고로 노비는 혁파되어야 한다’며 노비제도를 계약제로 바꾸려는 노력, 사람을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했다.

이렇듯 ‘정조는 자신을 낮추고 모범을 보이고 백성을 아끼고 그들을 포용한 지도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준다’ - ‘리더라면 정조처럼’ 저자 강의 내용 중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주기적으로 리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라의 지도자, 지자체의 지도자, 단체의 지도자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선출한다. 지도자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공동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지도자는 신분만큼이나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지도자로 칭함 받기를 즐겨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렇듯 때에 따라 지도자의 올바른 결정이 공동체의 경쟁력이 되기도 하지만 오만과 독단, 잘못된 결정이 경쟁력 상실을 넘어 구성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조직을 와해시키기도 한다. 지도자의 역할은 권한 만큼이나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는 아닌지 리더십의 지향점은 올바른지 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이다. 백성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간 정조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자문위원 \_ 정명환 건축사(a2700@daum.net)

건축사 Q&A

▶ 건축현장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국토교통부 등 현장점검 진행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 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동법 시행규칙 제 48조에 의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 제101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점검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 점검내용 : 전국 1,800여 개 소규모 건축물 건설현장 안전점검  
1) 건설공사 중 콘크리트타설 시 발생하는 재료분리현상(일명 “곰보”현상)에 대해서는 무수축 몰탈 등으로 보완 조치 했는지 확인함  
2) 주요자재의 자재승인서 및 성적서 등 비치  
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른 비계의 설치에 따른 하부 고임목의 설치 여부 확인  
4) 건설사고 예방 중점점검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결과 체크 여부 확인

건축사 만평 \_ 김선채 건축사 作 / 뉴텍 건축사사무소(광주)/건미희



오메! 무등산이 없어졌네!  
시외출장을 다녀올 때면 시내로 들어오는 길목에 고향 집을 찾을 때 받겨주는 어머니 품 같은 무등산이었다.  
불과 몇 년 사이 아파트 붐이 일어나면서 그 모습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아쉽다.  
나도 거기에 한몫을 동참하는 아이러니 속에 산다...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본석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토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근,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강현규, 조연준, 이길환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박종호  
부편집인 박주현, 임현정,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전담기자 객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배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임태형, 정영진, 허만수, 설해순, 오선화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대광판별 350,000원
- 대양단월 350,000원
-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 이본석 이본석 법률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광고 및 구독신청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 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 원
- 하단광고 : 350,000 원
- 하단 1/2 광고 : 200,000 원
- 구독료 : 20,000 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복합교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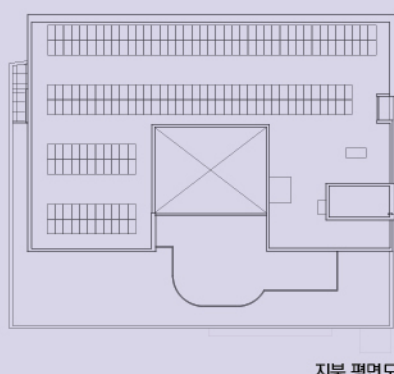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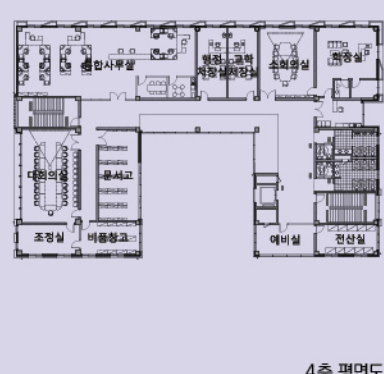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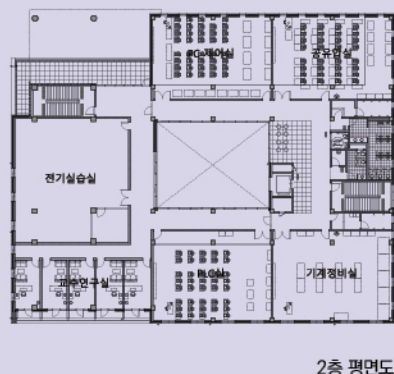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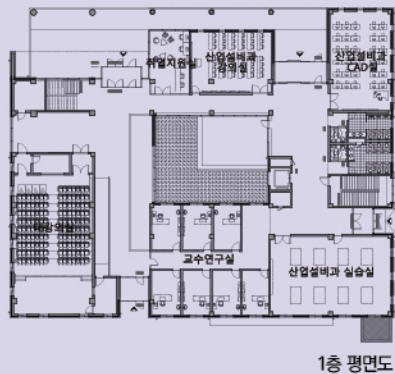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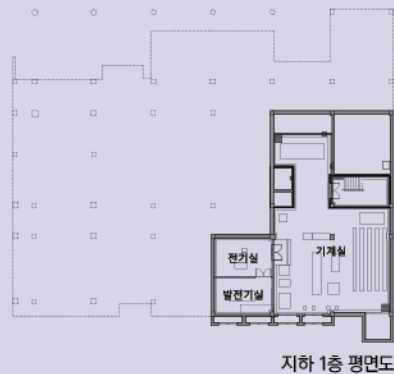
이현조 건축사 /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동명로 57, 4층  
Tel. 062-415-7210



대지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435-2 외 4필지 / 대지면적 : 30,301㎡ / 건축면적 : 1,647.33㎡ / 연면적 : 5,271.70㎡ / 건폐율 : 5.56%  
용적률 : 16.15% /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대학교)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점토벽돌, 화강석, Thk0.6 접합강판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는 노후된 본관동을 이전하고 산업설비과와 자동화과의 강의실 및 실습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교육시설의 획일적인 편복도의 개념을 탈피해 자연을 품은 중정의 개념과 ㄷ자형태의 열린 구조를 통해 자연이 건축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였고, 다양한 내부 휴게공간을 통해 다채로운 공간을 구현하였다.



대안이 아니다. 솔루션이다!  
강력한 솔루션 K-CAD  
마이다스캐드 아키디자인

## 2021 봄맞이 아키디자인 반짝 프로모션



midas ArchiDesign 프리미엄 특가 안내

1년	60만원 <small>ILic, VAT 별도</small>	3년	<del>180만원</del> 140만원 <small>ILic, VAT 별도</small>	5년	<del>300만원</del> 200만원 <small>ILic, VAT 별도</small>
----	-------------------------------------	----	--	----	--

아키디자인 정가 60만원/년

※ 2017년도 이후 개설된 건축사사무소는 창업지원혜택으로 추가할인 가능!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광주건축사회 제17대 정인채 신임회장((주)건축사사무소 정호) 취임**  
 지난 3월 26일 광주건축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의 회장 직무를 시작



지난 3월 17일, 광주건축사회 제34회 정기총회에서 제17대 회장으로 당선된 정인채 신임회장((주)건축사사무소 정호)이 3월 26일 광주 북구 광주건축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의 회장 직무를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환 위원장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이상배 국장, 대한건축사협회 손근익 부회장,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회장을 비롯한 호남권 건축 관계 기관장 및 교수, 건축사 등 50여 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정인채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3년간 우리 광주광역시 건축문화의 밝은 미래를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회원들에게 발전된 광주건축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라는 회원 여러분의 명령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약속과 원칙을 지키고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들을 이끌어 건축사로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 행정관청과도 건설한 관계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건축 정책 제시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인채 신임회장은 광주건축사회장 당선 및 취임으로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이사장도 겸직하게 됐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 지난 3월 17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영문 건축사(이영 건축사사무소)와 강형선(종합건축사사무소 메카), 김도석(미르 건축사사무소), 김준철((주)건축사사무소 에코플랜), 김기준((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익희(건축사사무소 울림), 강동영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라움)가 광주건축사회 신임임원 위촉장을 받았으며, 이해란 건축사(나래 건축사사무소)와 안성섭((주)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정명환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지웃)가 광주건축사 신임 임원 위촉장을 받았다.

**광주건축사회 신임회장단, 5개 구청 건축과장들과 간담회 가저**

정인채 회장을 비롯해 신임 부회장들과 구협의회 회장들 함께... 상호 협력 방안 논의



광산구청장 간담회



서구청장 간담회



남구청장 간담회



동구청장 간담회



북구청장 간담회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신임 회장 취임 후 지난 3월 29일 열린 2021년도 제3회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영문(이영 건축사사무소)·강형선(종합건축사사무소 메카) 신임부회장과 5개 구 협의회장(동구: 장동원/서구:박재홍/남구:노진욱/북구:임채열/광산구:조휴환) 등이 광주 지역 5개 구청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3월 31일 광산구청 김삼호 구청장을 시작으로 4월 1일 서구청 서대석 구청장과 남구청 김병내 구청장, 4월 8일 동구청 임택 구청장, 4월 9일 북구청 문인 구청장을 차례대로 만나며 덕담과 함께 앞으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채 회장은 "5개 구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며 상호 협력 관계를 원만히 형성해 회원사들이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건축사회 신임 회장단은 4월경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교육청 교육감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신임회장에 신정철 건축사 선출**

지난 3월 30일 열린 2021년도 제2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추대 위촉... 4월 1일 취임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신정철 대표건축사를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정철 신임회장은 광주서석고등학교와 조선이공대학교 건축과, 광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건축사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나무심는 건축인 대표와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KAAB) 5년제 건축학 부 대학 심사위원, 전라남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위원, 광주전남건축사협동조합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다양한 건축활동으로 지역건축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관광부장관상과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수상한 바 있다.

신정철 신임회장은 "광주 건축계 여러 단체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건축문화를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정철 신임회장은 오는 4월 1일 공식취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광주·전남건축가회 신임회장에 조선이공대 길종원 교수 선출**

지난 3월 25일 정기총회에서... 광주전남지역 건축문화발전에 힘쓸 것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는 지난 3월 25일 정기총회를 통해 조선이공대학교 건축과 길종원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에 새로 광주·전남건축가회를 이끌 길종원 교수는 (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 회장과 (사)국제디자인교류재단 광주전남 회장을 역임했다.

길종원 신임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에 주목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건축문화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는 광주예총과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등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회원들은 주로 이 지역 건축 관련 학과 교수와 건축사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광주건축사회, 광주상공회의소 맞춤형 무료 입찰서비스 접속 아이콘 개설**

홈페이지 중간 아이콘 클릭 접속... 입찰정보 등 실시간으로 제공 사이트

광주건축사회는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무료 입찰정보 서비스를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로 입찰정보 및 낙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알림서비스)하며 맞춤 서비스와 일정관리를 통한 관심업종의 편리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접속 방법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접속 후 중간 아이콘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회원가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지 주소가 광주 소재지인 사업자에 한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팩스(FAX. 02-850-3566)로 전송하면 된다.

**광주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왕성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다예 / 광주 서구 동천로10번길 35-4, 1층
- 박현진 건축사 / 지에스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동천로10번길 35-4, 1층
- 장성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흙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43, 604호
- 김승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룰 / 광주 서구 동천로10번길 35-4, 1층
- 이정수 건축사 / RCT건축사사무소 이 / 광주 광산구 신가삼효로 2-10, 2층
- 변영섭 건축사 / 청해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신창로 70, 3층 303호
- 오영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합동건축 /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107번길 45-22, 301-2호

**• 변경(상호)**

- 박진호 건축사 / 유한회사 와이피그룹이감 건축사사무소

**• 결혼**

- 백민곤 건축사 / ㈜락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4월 10일(토)
- 노진욱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은강 / 장남 결혼 - 04월 24일(토)

**• 부고**

- 서영배 건축사 / 문화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3월 08일(월)
- 양병범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 모친상 - 04월 05일(월)



##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김미영 건축사  
 (주)금양이엔씨 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대호길 59-36, 1층  
 Tel. 061-334-2246



대지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23-6번지 / 대지면적 : 5,524.00㎡ / 건축면적 : 1,385.89㎡ / 연면적 : 992.98㎡ / 건폐율 : 11.41%  
 용적률 : 25.09%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전남건축사회, 제55회 정기총회 열고 신임회장에 한형민 건축사 선출

지난 3월 16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신임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3월 16일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 일림홀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순천지역 예향 건축사사무소 한형민 건축사를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각 지역건축

사회 회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총회로 개최되었으며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 지역건축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부의안건으로 총 5개 의안이 상정되었는데 '제1호 의안 : 회칙 개정의 건'과 '제2호 의안 :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결산서(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되었다.

'제4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신임회장 단독후보인 한형민 건축사가 온라인 신임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 득표로 신임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신임감사에는 화순지역 장인영 건축사사무소 장인영 건축사가, 신임이사에는 여수지역 한려 건축사사무소 배종수 건축사, 목포지역 (유)원 건축사사무소 이경일 건축사가 선출됐다.

'제5호 의안 : 대의원 선출의 건'에서는 조연준·국원식·양인승·강성일·김래수·윤대근·선민철 건축사가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한편,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한형민 건축사는 지난 4월 1일 공식취임하며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 전라남도, 전국 유일 '행복동지사업' 추진

전남건축사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추진... 가구당 최대 2천 500만 원 지원

전라남도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에게 안정적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유일의 주거복지사업인 2021년 행복동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동지사업은 지난 201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 사업 명칭을 바꿔 지금까지 총 707가구의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까지 도비와 시군비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9년부터 매년 복권기금 20억여 원을 확보해 도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면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순한 미관 개선, 도배, 장판 교체에서 벗어나 주택의 구조, 전기, 가스 등 주거

안전시설과 난방, 부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실질적 주거복지사업이다. 혜택받은 도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올해는 복권기금 24억 원과 시군비 8억 원 등 총 32억 원의 사업비로 약 170여 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전남건축사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원액을 지난해 가구당 2천만 원에서 2천 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화장실 개보수 시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거 편의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복동지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행복동지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본격적 추진

근대건축자산 보수·정비... 문화예술공간 등 공적 활용



근대역사도시인 목포시가 역사 공간 보존·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만호·유달동 일대 11만 4천여㎡로 2018년 국내 최초로 점 단위가 아닌 면 단위 국가등록문화재(제 718호)로 지정됐다.

조선시대 목포진부터 근대의 관공서, 주거, 상업시설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이 밀집해있는 지역이다. 노동운동, 소작 쟁의, 항일운동 등 일제강점기 당시 민중의 저항이 펼쳐진 공간으로서 3대항 6대 도시였던 과거 목포의 역사가 응축돼 있어 '지붕없는 근대역사박물관'으로도 불린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자산을 보수·정비하고, 이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다.

시는 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구축 용역과 근대건축자산 정밀실측 용역을 실시 중이다. 기록화한 데이터베이스를 다각도로 스토리텔링 해 목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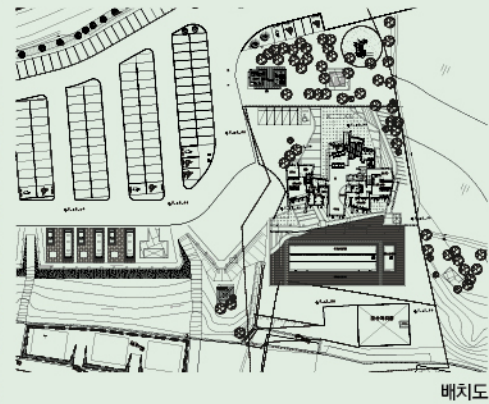
또 근대역사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올해 안에 원도심 일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국·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수립 용역과 홍보 등 실용적인 안내를 위한 종합활용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적, 행정적 장치뿐만 아니라 근대역사문화자산의 실질적인 활용방안도 차근차근 마련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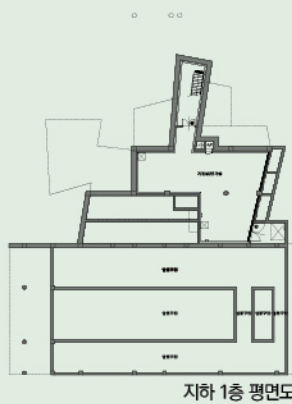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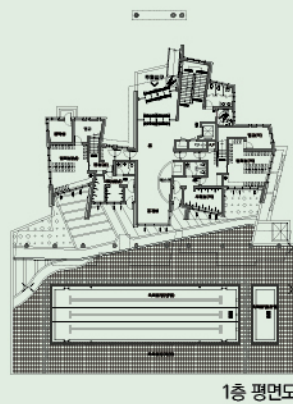
천혜의 자연의 돌머리, 자연의 원천, 바다의 생명력, 생명력 넘치는 방향성, 바다물결의 움직임의 개념을 잡고 계획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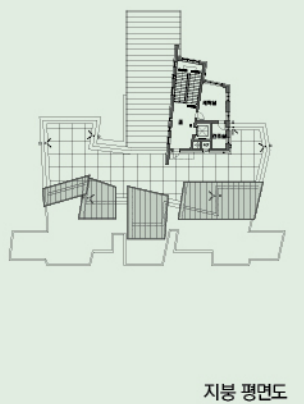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시는 근대건축자산 전수조사와 문화재청 및 자문위원회 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공간 내 공적 활용 가능한 건축물 총 10채를 매입 완료했다. 호남 최초 민중계 은행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등록문화재 제29호)'과 근대 가장 변화했던 조선인 가게 '구 갑자옥 모자점', 1950년대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해안로의 '구 대광전자 2층 상가건물' 등이 대표적이다.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은 원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수하는 한편 전시 문화 콘텐츠를 확충해 관광객에게 목포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근대역사공간의 핵심시설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구 갑자옥 모자점을 비롯한 매입 건축물들도 건축 당시 원형 복원을 목표로 보수·정비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목포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거리 곳곳에 근대적 경관의 야외공간을 조성해 휴식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은 화석화된 지역이 아니라 현재 주민이 거주하는 삶의 터전이다. 주민과의 협력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열쇠인 셈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건물의 입면, 간판 등 외관 수리에 지침이 되는 경관 보존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근대역사공간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과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또 전선 지중화, 가로경관 개선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전남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 시동

건축사 등 인력풀 대상 사용자참여 설계 설명회 개최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건축사 등 민간건축가 인력풀을 대상으로 사용자 참여설계 설명회를 갖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이날 참석한 인력풀은 전남교육청이 지난 2월 전국에

공모해 선정한 61명의 사전기획가와 촉진자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비롯한 학교공간혁신 사업, 신·개축 교육시설의 사전기획과 학교 구성원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용자 참여설계를 담당하게 된다.

사전기획 용역을 맡게 되는 이들은 학교별 교육비전과 교육과정, 수업유형 등을 분석해 학교의 교육공간을 구상하고 학교공간 특화 방향 등 종합추진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 촉진자 용역을 맡는 건축가들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의 특화 공간에 대한 세부 인테리어와 설계 디자인 아이디어를 모아 설계에 반영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학교교육 살펴보기와 공간혁신 유형, 사용자 참여설계와 촉진자 용역에 대한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함평 손불서초등학교의 학교공간혁신 사례와 건축가들에게 제언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전기획가들은 학교교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건축기획 업무를 어떻게 추진 할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다. 한 건축가는 "학교건물에 대한 사전기획을 해본 적이 없지만 학교의 교육활동을 고려한 사전기획으로 전남의 미래교육공간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남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월 중 사전기획가 용역을 계약해 사업을 추진하며, 2021년 영역단위 학교공간혁신 사업 선정학교들은 촉진자 용역을 계약해 공간혁신을 추진한다.

### 순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47,000㎡ 규모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 예정



순천시는 지난 3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허석 순천시장의 주재로 중앙대 최윤경 교수, 순천대 송성욱 교수가 전문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설계용역업체로부터

용역 추진 일정과 설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순천시 신청사는 현청사 부지를 동쪽으로 확장하여 연면적 47,000㎡,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신청사 외부에 중앙공원을 비롯해 6개의 중정과 내부에는 북카페, 다목적 강당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공간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를 마친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착공하여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정은혜 건축사 / 바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중앙2길 16, 1층

• **변경(소재지)**

- 김세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채움애 / 전남 목포시 후광대로 128, 302호



## 전북건축사회, 제55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지난 3월 18일 회관 소회의실에서... 제28대 박진만 신임회장 취임



**박진만**  
제28대 전북건축사회  
신임회장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3월 18일 건축사회 회의실에서 제55회 정기총회와 함께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제55회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회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회원들의 서면 투표를 사전에 받아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안건을 의결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상정의안으로 전북건축사회관 매입(취득) 결과 보고의 건과 2020년도 수지 결산(안) 승인의 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고 원안 의결됐다.

총회 진행 후, 제27대 이길환 회장(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과 제28대 박진만 회장(유)장원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이·취임식을 연달아 열었다.

제28대 박진만 회장은 남성고와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원광대 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과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외래교수, 삼성중공업(주) 건설사업본부 선임연구원직을 역임하고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진만 회장은 "취임회장으로서의 목표는 '자랑스러운 건축사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고 밝히며 "저의 모든 역량은 회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고 오로지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정진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지역건축사회, 제33회 정기총회 개최 및 신임회장 선출

지난 3월 23일 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9대 회장에 이성열 건축사



**이성열**  
제19대 전주지역건축사회  
신임회장

전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 3월 23일 회관 회의실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9대 신임회장에 이성열 건축사(유)중원 건축사사무소)를 선출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는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회원들의 서면 투표를 사전에 받아 최소한의 인원만 건축사회관에 참석한 가운데 안건을 의결하는 형식으로 총회를 진행했으며 회장으로 이성열 건축사를, 신임감사에는 이응록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이건), 최태규 건축사(다다 건축사사무소)를 선출하고 이사 12명은 회장 당선자에게 위임했다.

이성열 신임회장은 전 군산시와 익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성열 회장은 "전주지역 건축사 회원은 230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방대한 인원이나만큼 회원 간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회원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건축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는 정기총회에서 2020년도 수지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2021년도 회비수납 기준(안) 심의 승인의 건 등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 전라북도, 시군 '도시재생사업' 방향 공유·가속화

지난 3월 11일 '생태문명'과 국가 정책이 접목된 사업 발굴 간담회 개최



전라북도는 지난 3월 11일 도청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주요 정책인 '생태문명'을 접목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 중 사업 가속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은 현재 시행 중인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정 주요 정책인 '생태문명'을 접목하는 사업의 발굴 방안, 현재까지 선정된 41곳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와 시군 담당 과장,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토부 신규 공모 선정 방향이 주거지 공급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전라북도 특색에 맞는 도농상생,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등 생태문명 지역 특화 개념을 접목해 공모 사업 선정과 향후 사업 효과 거양을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합을 맞추었다.

국토부의 변경된 정책 및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 유형도 공유하고 올해 공모 예정인 사업에 다수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생태문화라는 관점에서 현대적 유산으로 재탄생시킨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사례와 같이 도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사람·자연·기술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도시재생으로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의 생태적 접근방법(Urban Regeneration: An Ecological Approach)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 몽환채 (夢歡柴)

빙안섭 건축사 /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전북 익산시 인북로 234, 2층  
Tel. 063-837-0508



대지위치 : 전북 익산시 임상동 593-1 / 대지면적 : 555.45㎡ / 건축면적 : 136.58㎡ / 연면적 : 141.84㎡ / 건폐율 : 24.59% / 용적율 : 25.54%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목구조



또한 회의에서 전라북도는 올해가 도시재생 뉴딜이 추진된 지 5년 차가 되는 해로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전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배정된 예산의 전액 집행을 위해 착·준공 일정을 조속화하고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여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시·군 개별 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담관을 배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혜택과 벌점 부여를 강화하여 시·군에서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전주시, 농촌지역 거주민에 건축 관련 무료상담

전주시건축사회 재능기부... 오는 5월 31일까지 건축 관련 상담 진행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촌지역 노후 단독주택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축·증축·대수선을 위한 건축 설계 등 건축 전반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상담 서비스는 전주시 건축사회 및 공공건축가의 재능기부를 받아 진행되며, 상담 신청은 완산·노송·인후·팔복 해피하우스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시 건축사회와 지난 2012년 재능나눔 협약을 맺은 이후 공공건축가를 선정해 현재까지 212세대에 무료 건축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농촌지역 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도 11가구에 건축설계·시공·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원스톱 무료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주시 완산구, 노후 공동주택 '옥상 방수·외벽 도색' 지원

'2021년 노후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 완산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에 옥상 방수와 외벽 도색 등 보수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완산구는 올해 총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투입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과 소규모(4~19세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1년 노후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용·부대시설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옥상 방수'와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경비실 환경개선 사업' 등이 지원된다.

구는 올해 노후 정도가 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효자1동 효자대림마이비야파트 등 총 9개 단지를 선정했으며, 상반기 내에 이들 단지의 60% 이상인 6개 단지를 준공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은 노후 공동주택에는 단지별 사업비의 70% 이하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지별 사업비의 80% 이하까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에 앞서 구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57개 단지에 총 35억 원의 주택수선비를 지원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13개 단지에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

### 김제시, 202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본격 추진

연면적(주택+부속 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 대상

김제시는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주거 여건 개선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이 대상이며,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 개량희망자',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직원 숙소를 공급하려는 농촌 입주기업 및 농업인'으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제시는 사업추진에 앞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조사와 사업신청·접수를 완료하고 대상 가구 60동을 확정했으며,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전북 회원동성

• 입회

- 이정상 건축사 / (주)해누리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만성북로 47, 1동 504호

• 변경(소재지)

- 이종진 건축사 / 제이엔디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55
- 이재현 건축사 / 상상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65
- 노동호 건축사 / 해오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로 52
- 최정인 건축사 / 일상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15길 23
- 장동석 건축사 / 다빈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북동길 24
- 박민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우주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23
- 정용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운건축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4
- 정범수 건축사 / 남북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6

• 결혼

- 이준수 건축사 / 엔드림 건축사사무소 / 차녀 결혼 - 04월 10일(토)
- 심금용 건축사 / 비타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04월 17일(토)

• 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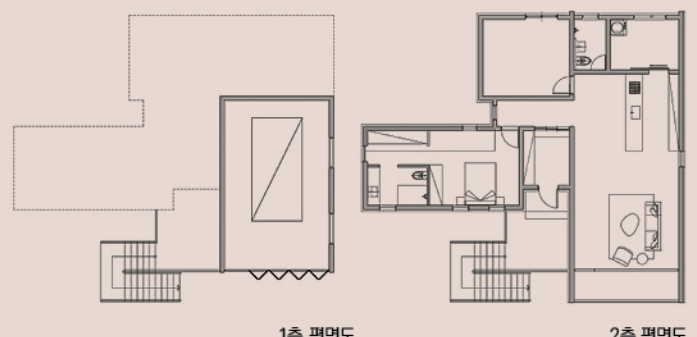
- 장맹식 건축사 / 동인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3월 30일(화)
- 임대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보원 / 부친상 - 04월 02일(금)



지형적인 특성을 살리고 소규모 건축물로서 기능과 미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했다. 1층엔 주차 공간과 수납공간을 마련하고, 2층에 생활공간을 배치하였다. 특히 2층에는 지형의 활용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조경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주거영역에는 개별적으로 프라이버시 공간을 만들었다.

몽환채는 시공과 설계가 만나는 화합의 장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된 집이다. 또 다른 건축가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축주에게 감사드린다.

기능과 미에 중점을 둔 몽환채는 소규모 건축물임에도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미니멀 건축물로 완성되어 직업적 보람을 느끼게 된 작품이었다.





## 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후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원, 지역 내 에너지 전문가들 간 연계와 협력, 필요한 정책 발굴·기획 등 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거점기관인 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를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제로에너지(1등급)건물로 건축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하고 2045에너지자립도시 시범 모델로 구현하고자 함.

심사위원 : 조창근(조선대학교), 이민희(호원대학교), 한승훈(전남대학교), 성기용(동서울대학교), 김흥식(호남대학교), 이순미(㈜건축사사무소 미가온), 김진숙(공명 건축사사무소)

- 대지위치 :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A-7(구 광주 남구 압촌동 228번지 일원)
- 대지면적 : 6,000.0㎡
- 연 면 적 : 5,400.0㎡(±5범위 내 조정가능)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5층
- 용 도 : 교육 및 연구시설
-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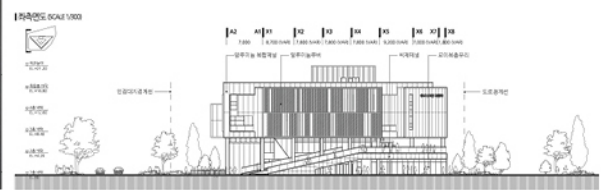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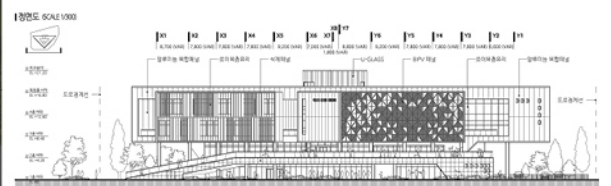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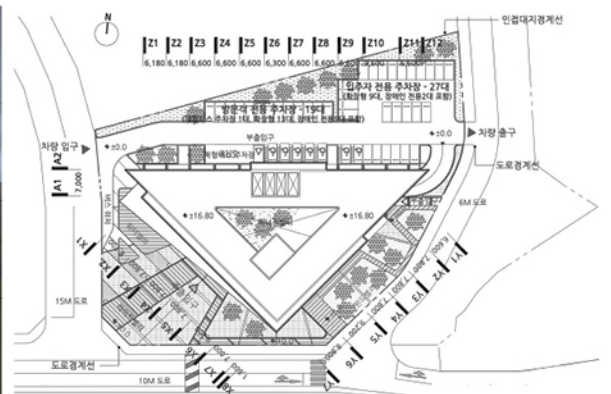
당선작 :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등작 : 건축사사무소 가원

3등작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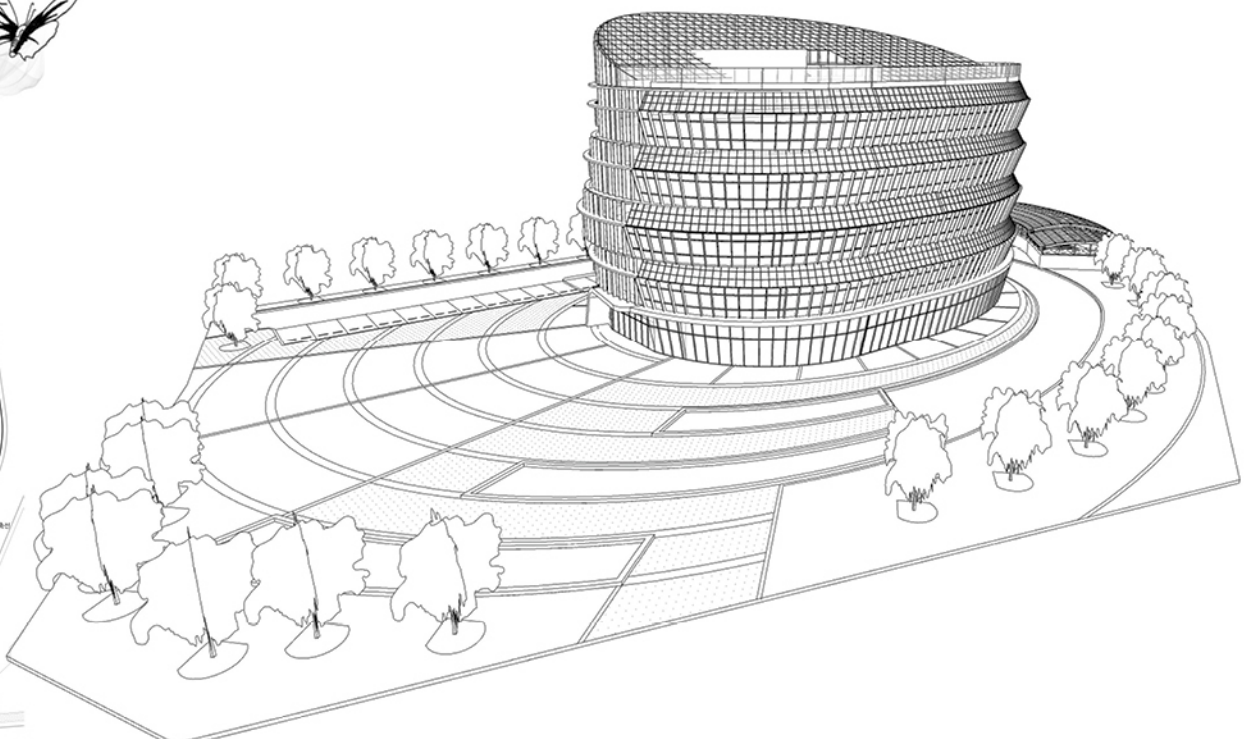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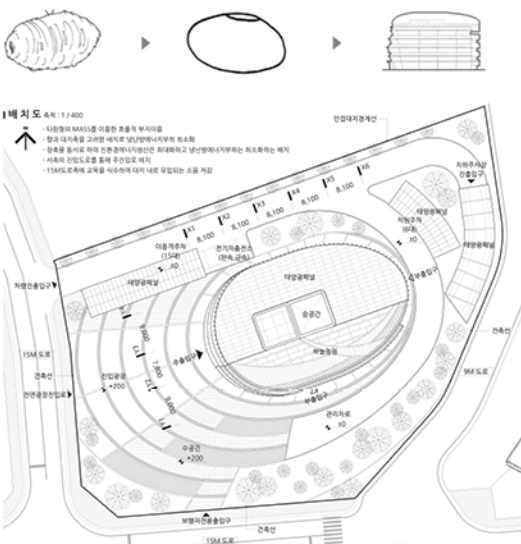
### 당선작

오금열 건축사 /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이현조 건축사 /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김기준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2등작

유형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원





# 쇠뿔



**최상철** 논설위원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 건축사  
ybdscs@naver.com

- 1993. 12. - 현재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 건축사 /  
한옥, 생태건축, 문화재  
실측설계
- 1994. 10. - 2008. 6.  
전북일보에 〈건축상담〉,  
〈최상철의 건축이야기〉  
연재
- 2004. 10. - 2005. 3.  
전민일보에 〈건강한 집,  
건강한 생활〉 기획연재
- 2010. 4. - 2011. 12.  
월간 자치광장에 〈최상  
철의 집이야기〉 연재
- 2012. 1. - 2014. 12.  
월간 열린전북에  
〈삶과 건축〉 연재
- 저서로는  
〈내 마음을 두드린 우리  
건축〉, 〈내가 살던 집 그  
곳에서 만난 사람〉,  
〈전주한옥마을〉(공저)

흔히들, 한옥은 못 하나 박지 않고도 집을 짓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건축이 더 우수하다는 찬사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사실, 요즘 짓는 한옥에만 못을 박는 것은 아니었다. 아주 옛날에도 한옥을 지을 때는, 이런저런 접합부에 못을 때려 박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당시에는 쇠(鐵)가 몹시 귀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기저기 함부로 쇠뿔을 박지 못했을 뿐이다. 오죽하면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대장간에 철물을 특별주문한 뒤, 그걸 자랑거리로 삼았으랴.

물론, 한옥을 지을 때 못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건 “일정한 조건”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참”이 되는, 이른바 불완전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어디 한번 살펴보자.

알다시피 주춧돌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보와 도리 등 축부재(軸部材)로 건물의 뼈대를 세울 때는, 정말 못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옥 목구조의 특성상, 대부분의 접합부마다 잇고 맞춰서 결구(結構)를 이뤄내기 때문이다.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울 때도, 요즘처럼 굽고 가는 철근을 그물처럼 엮고 그 자리에 마치 굳으면 암석처럼 단단해지는 콘크리트로 조급하게 결박해내려 하지 않았다. 주춧돌의 자연스러운 형상에 따라 그레질을 하여 기둥 하부를 조심스레 따낸 뒤, 주춧돌 위에 그냥 얹혀놓는 것만으로도 허공에 기둥을 너끈하게 세워나갔다. 그래도 갖은 내우외환에 흔들림 없이 수백 년을 거뜨히 버텨낼 수 있었다. 그게 우리 한옥 결구(結構)의 시작이었다.

또 그 기둥 위에 수평부재인 들보와 도리가 결구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요즘처럼 철물로 단단하게 접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접합부위를 따내고 채워서 잇고 맞추는 것으로 건물의 뼈대를 차례로 완성해나간다. 이른바 ‘이음과 맞춤’의 정수(精髓)를 차례로 선되는 것이다. 정말 이때까지는 “쇠뿔”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 현대건축에 익숙해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과정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런데 뼈대(축부재)가 완성된 뒤, 서까래가 얹힐 때쯤 되면 그 아름다운(?) 상황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한다. 여기저기에서 “뚝뚝뚝”거리며 망치질이 시작되는 것이다. 못을 박지 않고서는 그 등 그런 형태의 서까래를 제대로 고정할 수 없는 탓이다.

그래도 옛날 한옥을 지을 때는 남의 가슴(?)에 그렇게 함부로 쇠뿔을 때려 박지는 않았다. 옛날에는 쇠뿔 대신 죽정(竹釘)과 연침(椽針)을 썼다.

연침이라고 하면 보통 대나무나 싸리나무 긴 것을 몇 개 겹쳐서 만들게 되는데, 현대건축의 안목으로 보면 차마 못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형태다. 어쨌든 그 연침을 서까래 끝머리마다 가지런히 뚫어놓은 구멍에, 마치 굴비 엮듯이 꿰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 수많은 서까래를 처마 끝에 나란하게 줄지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느슨한 결합으로도 수백 년을 거뜨히 버텨다.

만일 쇠뿔을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상상은 부질없는 짓이지만, 본디 상극(相剋)으로 작용하는 쇠(金)와 목(木)의 본성을 도외시한 채, 쇠뿔을 서까래 몸통 여기저기에 때려 박아 강제로 결구시켜 놓으면, 우선 당장의 결합은 더 완벽해 보였겠지만 목재의 표면을 가르는 상처는 적잖았을 것이다. 현대 한옥의 처마 밑을 올려다보면 그건 자명(自明)해진다.

가끔, 제 몸의 습도조절을 하느라 몸부림을 치는 서까래들을 그렇게 강한 쇠뿔으로 위아래를 결박해놓으니, 대기 중의 온습도에 맞춰 목재 표면이 뒤돌아지면서 못은 들뜨고 서까래는 여기저기 제 몸이 더 쉬이 터져나간다. 요즘 새로 짓는 한옥에서는 어렵잖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렇다면 주조(鑄造) 기술만 탓할 일도 아니었다. 그 “모자라고 부족함”으로 인해 최소한 쇠(金)와 목(木)이 부딪히며 벌일 상극(相剋)의 참상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열평창계수가 서로 다른 쇠뿔과 목재를 강제로 결합해놓는 역지를 부리지 않은 것만도 눈여겨 볼 만한 일이다.

그저 허투루 지어놓은 것 같은 옛날 한옥 한 채에도 거기에 사용되는 물성의 본질을 훤히 꿰뚫어 볼 줄 알았고, 또 그 본성에 충실하도록 갖은 결구기법을 알뜰살뜰하게 발전시켜온 우리 조상들의 혜안(慧眼)이 새삼스럽다.

그래서 기와지붕 밑으로 스멀스멀 스며드는 습기로 인하여 서까래 곳곳이 썩어들어가는 환란이 닥치거나, 또 모진 북풍한설과 작열(灼熱)하는 태양의 열기(熱氣)로 그때마다 한동안 몸부림을 칠망정, 근린주구(近隣住區) 내에 있는 상대를 서로 속 터지게 하지는 않았다.

예로부터 강한 것은 쉬이 부러진다고 했다. 부러진다고 해도 저 혼자만 부러지면 그 죄업이 가벼우려만, 강할수록 싸잡아 함께 망가지는 게 작금(昨今)의 세태다. 밧줄로 단단히 공공 묶어놓았다고 해서 떠날 사람이 떠나지 않을 리 없고, 돌아선 마음이 되돌아올 리 없다. 모두 다 때가 되면 떠나고, 때가 되면 느슨해지다가, 또 때가 되면 떨어지기 마련이다.

얼마 전 동백(冬柏)이 힘없이 떨어져 누운 땅 위로, 다시 벚꽃이 흩날리고 있다. 그 기린 한겨울 내내 어금니를 깨물며 이 계절을 기다렸으려만, 하릴없는 봄바람에 봄꽃들은 찰나의 기억만 남긴 채, 다시 또 제 갈 길을 마저 재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지 그저 서까래에게 제 몸 하나 들어갈 정도의 간단한 양해만 구한 뒤, 평생 서까래를 모시고 사는 연침의 역할이 유난히 더 돋보이는 아침이다. 처마 밑에 줄지어 늘어선 서까래를 올려다보고 있으니, 그 공덕이 더욱더 새삼스레 다가온다. 아무리 시절이 하 수상하여도 봄은 봄인가 보다.

**비대칭 EQ 합성보(진동, 응력 우수)**

# EQ공법

- ▶ 일반철골구조에 비해 진동성능이 우수 (최대 45% 향상)
- ▶ 철골 공사비 40% ~ 15% 절감
- ▶ 접합부 내진 성능 및 응력 크기 향상
- ▶ 불필요한 중간기둥 없이 무주공간 활용 (공간 활용성 우수)
- ▶ 주차타워, 상가, 물류창고 적용시 공간활용 극대화

건축구조  
기술사회  
기술인증서  
획득

한국구조물진단  
유지관리공학회  
기술인증서  
획득

관내(경구조,  
건설사, 시행사)  
누구나  
사용 가능

무료  
철골구조  
경제성 검토

**문의전화 1666-5123**



책 소개 \_ 정가원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한 편의 시 \_ 우강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림

아몬드

손원평 저 / 창비 / 2017. 03. 31.

이 책은 알렉시티미아(Alexithymia,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정서적 장애가 있는 아이의 이야기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 윤재가 타인과 관계 맺고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끝까지 섬세하게 짚어나가는 소설이다.



나는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 생소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불행이나 슬픔,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책을 계속 읽으면서 그런 감정들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라는 것을 알았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뿐만 아니라 '곤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 아이는 사회에서 항상 문제아 취급을 받고 비난을 듣는 아이이다. 반면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은 '사람들은 곤이가 대체 어떤 애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단지 아무도 곤이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 문장을 보고, 어쩌면 나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지 않았는지 생각이 들었고, 나의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을 보았던 태도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모두 주인공과 곤이에게 '비정상이다, 괴물이다.'라고 했지만, 문득 우리 주변에 정상인이라는 게 있기는 할까 싶었다.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는 어느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의 관점 차이일 뿐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였다. 여기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무감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자신의 바쁜 삶에 쫓기느라 남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기보다는 자신을 감추고 경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사람들은 감정과 공감을 다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을 무시하고 스스로 무감정인 척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쁜 일상에 지쳐 있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주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

안개와 같은 인생

불안개 가득한 오송제  
뿌연 안개속에 물오리 한쌍  
갈길을 몰라 헤맨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불안개  
이슬비처럼 새싹에 흘러내리고  
검은머리끝에 물방울 맺힌다

잔잔한 수면 위 솜털같은 안개는  
가느다란 베마른 가지에  
촉촉한 수분을 뿌려주고  
어지러운 세상 잠시 가려준다

온 지천을 덮어주던 안개도  
아침해가 뜨는 그 시간에  
자신의 임무를 마친 듯  
살며시 자리를 비켜 준다

짧은 우리의 인생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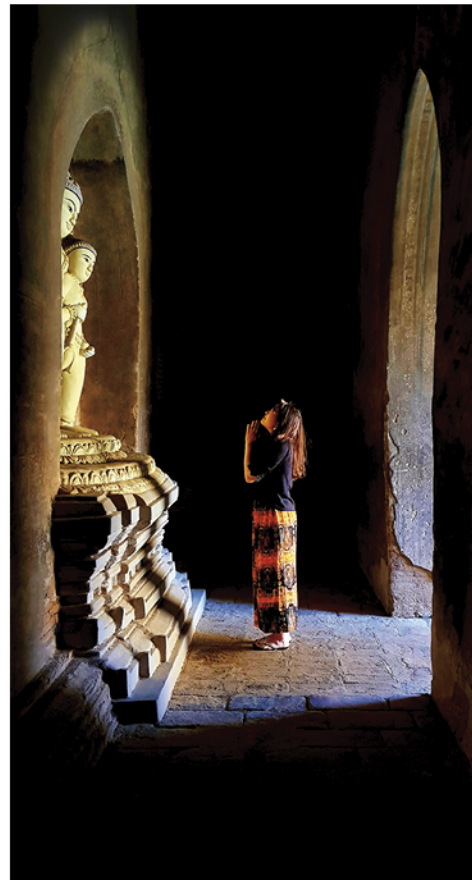
온 천하 만물 손안에 있는 것처럼  
허우적대고 욕심부리지만  
피었다 금방 지는 꽃잎마냥  
빈손으로 사라지는 인생

오늘도 불안개 수면을 스쳐갈 때  
물고기 주둥이 내밀고  
그렇게 빈마음으로 살라한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미안마 평화를 위한 소녀의 기도



미안마 바간  
2020년 2월 촬영



**화재에 강하다!**

www.dkboard.kr

검색

**준불연가등급**

**DK본 EPS 단열재**

외단열용(2' X 4')  
건축용(3' X 6')  
판넬용(나등급)

DK보드 건축용은 최적의 무기난연제인 팽창흑연을 비드내에 함침시켜 난연성능이 향상된 소재에 자체개발한 특수 고난연 물질을 도포 마감한 고난연 친환경 준불연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 준불연재료 공인시험기관 인증
- 열전도율 : 0.032 W/m·k
- 친환경 수성

**DK** | 주대 광 판넬  
주디케이보드